

가족기능, 또래애착이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 일반자녀와 직업군인자녀를 중심으로 -*

양 수 경¹⁾

가톨릭대학교 아동가족학전공

문 혁 준²⁾

가톨릭대학교 아동학전공

본 연구에서는 중학교에 재학 중인 일반자녀와 직업군인 자녀들을 대상으로 가족기능, 또래 애착이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인천과 충남 지역의 중학교 1학에 재학 중인 430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387명이 최종 분석대상이 되었다. 수집된 자료는 Cronbach's α , t-test, Pearson의 상관분석, 중다회귀분석을 통하여 분석되었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일반자녀가 직업군인자녀보다 자아존중감을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일반자녀와 직업군인 자녀 모두 가족기능, 또래애착이 높은 아동의 자아존중감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셋째, 일반자녀는 또래애착만이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직업군인자녀는 가족기능, 또래애착 모두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일반자녀와 직업군인 자녀의 특성과 개별성을 고려하여 자아존중감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청소년기 주요과업인 자아존중감 향상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청소년들에게 도움을 주는데 목적이 있다.

주요어 : 자아존중감, 가족기능, 또래애착

* 본 논문은 2012년 추계학술대회 포스터발표논문임.

1) 가톨릭대학교 생활문화학과 아동가족학 전공, 박사과정

2) 교신저자 : 가톨릭대학교 아동학전공, 부교수 (E-mail : mhyukj@unitel.co.kr)

I. 서 론

현재 대한민국은 6.25라는 사건을 경험한 후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로 경제규모나 인구 등을 고려해 보았을 때 직업군인을 포함하여 세계 최고 수준의 군인을 유지하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세계 각국은 안보환경과 역사적 배경 등에 따라 다양한 병역제도를 채택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징병제로 이는 개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국가가 병역의무를 강제로 부과하는 것을 말하며 안보위험이 높은 나라들은 대부분 징병제를 채택하고 있다(고영환, 2003). 또한 징병제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에서 병행하는 제도로 직업군인제도가 있는데, 직업군인제도는 군인으로서 장기복무를 희망하는 사람이 지원하여 복무할 수 있도록 개방하고 생활 보장을 위하여 보수가 지급되는 제도이다(최은순, 2009).

일반 자녀와는 다른 특수한 성장환경을 가지고 있는 아버지가 군인인 자녀는 지속적으로 다른 근무지로 전속되는 교대 근무제도의 시행으로 잦은 이주라는 특수한 환경에서 성장하게 된다. 학령기 군인 자녀들은 불안한 형태의 가정환경에서 아버지 역할의 부재와 특수한 교육환경으로 심리적 갈등을 겪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최윤정, 2005), 군인의 직업적 특성이 가정환경과 자녀의 가치관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이호성, 1983). Dauvan과 Adelson(1966)은 이동경험이 있는 청소년들은 그렇지 않은 청소년들에 비해 동료관계가 발달하지 못한다고 하였는데 이와 관련하여 안만국(1983)은 군인자녀의 잦은 전학의 누적으로 인하여 학급 내 원만한 인간관계를 유지하

는데 어려움을 보고하였으며, Walling(1990)은 군인 자녀들의 잦은 이동경험은 정서적인 측면이나 대인관계에 있어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정병두(2000)의 연구에 의하면 군인의 일반적인 특성으로 인하여 자녀의 학업태도와 학교적응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으며 특히, 직업군인 아버지의 부재는 남아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 반면, 최윤정(2005)의 연구에서는 군인 자녀들과 일반자녀들은 동등한 수준으로 삶의 질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군인가정의 환경적 특성이 학령기 아동의 삶의 질이나 행동양상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하였으며, Marchant와 Medway(1987)는 군인의 주기적인 이동과 자녀의 전학 그 자체만으로 자녀에게 불리한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문선영(2009)은 군인 자녀들의 잦은 전학은 다양한 문화적 경험을 통해 새로운 세계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혀주고 적응력을 향상시켜주는 반면, 정서적 측면, 특히 대인관계에서 어려움을 주는 원인이 된다고 하였다.

위와 같이 선행연구에서는 군인자녀의 특수한 환경에 따른 발달의 긍정적 측면, 부정적 측면에 관하여 일관되지 않은 보고를 하고 있다. 청소년기 주요 발달과업 중 하나인 자아존중감에 대하여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로 많은 군인과 직업군인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잦은 환경적 변화를 경험하는 청소년기 군인자녀의 자아존중감이 일반자녀와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는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자아존중감이란 자신에 대한 긍정적 평가, 능력에 대한 개인의 기대를 포함하는 자기 가치에 대한 전반적 평가(Baumeister, Dori, &

Hastings, 1998; Brown & Mankowski, 1993), 타인과 비교하여 자신에게 속한 것으로 추정되는 가치나 중요성(Long, Henderson, & Ziller, 1968)을 의미한다. 자아존중감은 전 생애 동안 발달하고 형성되는 것으로 청소년기는 자아에 대한 인식과 평가가 활발해 지므로 그 어떤 시기보다 중요한 시기라고 볼 수 있다(김지영, 이형실, 2010).

긍정적이고 높은 자아존중감은 개인의 자신감 형성 및 창조성과 생산성에 필수적인 요인이지만, 부정적이고 낮은 자아존중감은 개인의 자신감 저하 및 무능력감을 가져오는 요인이 된다(임수경, 이형실, 2007). 따라서 학생들이 스스로가 자신을 긍정적 혹은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에 따라 개인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자아존중감이 높은 청소년들은 스트레스에 능동적인 대처를 하고(윤신기, 2004) 외로움을 덜 경험하는 반면(임연진, 나유미, 2003), 낮은 자아존중감은 우울 및 정신건강문제(D'Zurilla & Nezu, 2007), 다양한 문제행동(Daane, 2003; McGee & Williams, 2000)을 나타내기도 한다. 청소년들의 높은 자아존중감은 성장과정에 있어서 자신이 곧 주인이며, 가치 있는 존재로 인식하게 됨으로써 모든 일에 자신감을 가지고 어떠한 변화에 대해서도 잘 대처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양정화, 2002). 또한, 청소년기의 자아존중감 발달은 건강하고 유능한 성인으로 성장하는데 있어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이효정, 2003), 정미선(2010)은 인생의 결정적 시기인 청소년기의 자아존중감 형성은 중요한 과업이라고 하였다.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은 적응 및 문제행동을 예측하는 주요 요

인으로 박재하(1990)는 군인의 직업 특성 상 아버지와 자녀가 별거하는 경우 정서적인 발달이 불안정하고 사회적응 능력이 미숙하며, 특히 남아들의 경우 사회적 일탈이나 비행 문제가 별거하지 않은 아이들보다 빈번하게 발생한다고 하였다.

Mead(1934)는 주위사람들과의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통하여 자아존중감이 발달하게 된다고 하였으며 특히, 부모나 형제, 또래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발달된다고 하였다. 즉, 가족이나 또래와의 상호작용의 성공과 실패 경험이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고 이들과의 만족스러운 경험은 자아존중감을 높이는데 도움을 준다는 것이다(임수경, 이형실, 2007).

청소년기는 표면적으로 가족이라는 틀을 벗어나 심리적으로 독립을 추구해 나아가는 시기로 청소년의 심리상태나 안녕감에 가족기능의 영향력을 간과할 수 없다(Bynum & Kotchick, 2006; Richard, 2008). Olson(1991)은 기능적인 가족이란 가족 구성원 간에 경계가 명확하면서도 우리라는 소속감을 갖는 것을 의미하며, 적응성이 매우 낮은 경직된 가족이나 반대로 적응성이 매우 높은 혼돈된 가족은 역기능적이고, 적절한 수준의 적응성이 가족의 기능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다고 하였다.

Shek(2002)은 가족의 기능이 원활하면 청소년의 심리와 정신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으며, 이미현(2005)의 연구에서 가족기능은 청소년의 학교 적응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고, Garbarino와 Sebes(1985)는 강박증, 불안, 우울, 비행 등을 경험하는 청소년 가족일수록 혼란되고 밀착된 상태의 가족의 유형을 보였다고 하였다. 즉, 가족의 기능은 개인

뿐만 아니라 청소년 시기에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되는 학교생활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며, 사회 부적응까지도 초래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직업군인의 경우 윤화준(2011)은 직무환경 특성상 가족기능의 하위요인인 가족 내에 유연성과 적응성을 갖는데에 다른 일반 직업을 가진 가족들보다 어려움을 가진다고 하였으며, 직업군인의 특성상 잦은 이사는 군인 가족에게 많은 변화에 즉시 적응해야 하므로 스트레스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하였다.

가족기능과 자아존중감의 관련 연구를 살펴보면, 김태현과 이영자(2005)의 연구에서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가족기능 중 결속력으로 나타나 가족은 청소년의 성장과 발달에 일차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환경임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아동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가족기능은 아동의 자아존중감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자아존중감과 높은 상관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하였으며(서영미, 2004), 류광석(2002)은 가정생활에 대해 느끼는 주관적인 만족감이 자아존중감의 발달과 관련이 있음을 보여주었다.

강진희(2000)는 청소년기 군인 자녀들은 아버지의 역할에 있어 자신에 대한 이해와 가족에 대한 관심과 배려가 부족하다고 하였는데, 이는 가족과 자녀에 대한 정서적 지지가 부족함을 시사하고 있다. 또한 이영균, 최복희(2010)의 연구에서 가족생활의 만족도는 군인 가족의 총체적인 삶의 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선구(2007)는 기혼 군인들이 어려운 가족생활을 하고 있을 것

이라고 하며, 가족과 자녀의 미래에 관심을 쓰지 못하고 오로지 군에만 몰입한 것에 대하여 자책을 한다는 것을 밝혔다.

청소년기에는 가족으로부터의 독립욕구가 강해지면서 평등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또래집단에 더 몰입함으로써 친구가 중요한 사회적 관계의 중심이 되며(최정미, 김미란, 2003), 부모에 대한 애착 못지않게 또래를 주요 애착대상으로 여기고 애착을 형성하게 된다(Freeman & Brown, 2001). 애착이란 자신과 특정 개체 사이에 형성되는 지속적인 정서적 유대로(Ainsworth & Bell, 1970) 전 생애 발달 이론에서 애착의 기능은 모든 연령에 걸쳐 환경을 정복할 수 있게 하고, 그것을 통해 자아존중감과 사회적 능력을 발달시켜 나아가는 것이라고 하였다(Kalish & Knudston, 1976). 따라서 청소년기에 이루어지는 애착은 영유아기와 아동기 뿐 아니라 청소년기에도 발달 측면에서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청소년기는 개인적 발달과 사회적 적응에 또래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영향력이 높은 시기(서주현, 유안진, 2001) 청소년기의 또래 관계는 청소년에게 정서적 지지를 주게 된다(Youniss & Smollar, 1985). 또한 청소년기에는 또래관계의 비중이 커지면서 부모로부터 벗어나 자율성과 독립성을 획득하려는 과정에서 친구들을 통하여 자신의 정체성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또래애착을 더욱 중요하게 보고 있다(심수정, 2003). 부모 혹은 성인과의 관계는 위계적인 성격을 띠는 반면 또래관계는 평등한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회화를 학습하기 위한 청소년기의 또래관계는 매우 큰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다

(김미란, 2002). 상호적인 우정관계가 잘 형성되었을 때 자신이 지지받고 있다는 느낌과 안정감을 느끼고, 갈등은 낮아지며, 질적으로 우정관계가 잘 형성되었을 경우에는 청소년의 반사회적 행동에 대해 보호역할을 한다는 연구결과(Laird, Petti, Dodge, & Bates, 1999), 또래로부터 거절을 경험한 청소년들일수록 더 높은 비행수준을 보였다는 연구결과(Barnow, Lucht, & Freyberger, 2005; Chapple, 2005) 등은 청소년기의 또래관계의 중요성을 보여주고 있다.

또래 관계와 자아존중감의 관계를 분석한 연구로 만족스럽고 조화로운 또래 관계를 가졌을 때 청소년들은 긍정적인 자아존중감을 갖게 되는(Laible, Carlo & Roesch, 2004) 등 또래 요인이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보고되었다(김지영, 이형실, 2010; 이미리, 2005). 또한 Harter(1993)의 보고에 의하면,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타인은 또래집단이나 급우들로 이들의 영향력은 부모보다 훨씬 크다고 하였다. 남녀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관련 변인을 살펴본 김수희(2009)의 연구에서도 남녀 청소년 모두 또래애착에 있어 자아존중감이 관련 있는 변인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남자 청소년의 경우 또래애착이 자아존중감과 가장 높은 상관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기 주요 발달과업인 자아존중감에 관하여 일반자녀들을 대상으로는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있지만 직업군인의 자녀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일반자녀와 직업군인 청소년 자녀를 대상으로 자아존중감의 차이를 알아보고,

가족기능과 또래애착이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는데 그 목적이 있다. 특히, 일반자녀와 직업군인자녀의 특성과 개별성을 고려하여 자아존중감을 향상 시키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청소년기 주요과업인 자아존중감 향상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기초자료를 제공함으로써 청소년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에 따라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일반자녀와 직업군인자녀의 가족기능, 또래애착, 자아존중감은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2. 일반자녀와 직업군인자녀의 가족기능, 또래애착, 자아존중감의 관계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3. 일반자녀와 직업군인자녀의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을 무엇이든 그 영향력은 어떠한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조사는 직업군인 자녀들이 많이 다니고 있는 인천과 충남지역의 4개 중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총 430부의 설문지를 배부하여 수집 하였으며, 그 가운데 응답의 신뢰성이 의심되거나 부적절하다고 판단된 질문지 43부를 제외한 387부를 최종 분석 자료로 사용하였다.

조사대상의 일반적인 특징은 표 1과 같다.

표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징

(N = 387)

		일반자녀		직업군인자녀	
	구분	빈도	%	빈도	%
성별	남	102	52.3	96	50.0
	여	93	47.7	96	50.0
전학경험	없음	91	46.7	23	12.0
	1~2회	79	40.5	65	33.8
	3~5회	10	5.1	89	46.4
	6회 이상	1	0.5	12	6.6
	무응답	14	7.2	2	1.0
부연령	40세 이하	17	8.7	20	10.5
	41~45세	87	44.6	122	64.2
	45세 이상	89	45.7	48	25.3
	무응답	2	1.0	2	1.0
모연령	40세 이하	50	25.7	52	27.1
	41~45세	111	56.9	119	62.0
	45세 이상	34	17.4	19	9.9
	무응답	0	0	2	1.0
모	취업	121	62.1	63	32.8
취업여부	비취업	68	34.9	118	61.5

먼저, 본 연구에 참여한 학생의 성별은 일반 자녀 남학생 102명(52.3%), 여학생 93명(47.7%), 직업군인의 경우 남학생 96명(50.0%), 여학생 96명(50.0%)으로 남녀의 비율이 고르게 표집되었다. 학생들의 전학 경험을 살펴보면 일반 자녀의 경우 없음 91명(46.7%), 1~2회 79명(40.5%), 3~5회 10명(5.1%), 6회 이상 1명(0.5%) 순으로 나타났으며, 직업군인 자녀의 경우 3~5회 89명(46.4%), 1~2회 65명(33.8%), 없음 23명(12.0%), 6회 이상 12명(6.6%) 순으로 나타나 직업군인의 자녀는 일반자녀보다 전학 횟

수가 많음을 알 수 있다. 부 연령은 일반자녀의 경우 45세 이상 89명(45.7%), 41~45세 87명(44.6%), 40세 이하 17명(8.7%) 순이었으며, 직업군인 자녀의 경우 41~45세 122명(64.2%), 45세 이상 48명(25.3%), 40세 이하 20명(10.5%) 순으로 나타났다. 모 연령은 일반자녀의 경우 41~45세 111명(56.9%), 40세 이하 50명(25.7%), 45세 이상 34명(17.4%) 순으로 나타났으며, 직업군인자녀의 경우 41~45세 119명(62.0%), 40세 이하 52명(27.1%), 45세 이상 19명(9.9%) 순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어머니의 취업은

일반자녀의 경우 취업모가 121명(62.1%)으로 비취업모 68명(34.9%)보다 많았으며, 직업군인 자녀의 경우 비취업모 118명(61.5%)가 취업모 63명(32.8%)보다 많은 분포를 보였다.

2. 연구도구

가족기능

청소년이 지각한 가족기능을 측정하기 위하여 Olson, Portner과 Lavee에 의해 1985년에 제작된 Family Adaptability and Cohesion Evaluation Scale III: FACES III를 한상분(1992)이 연구목적에 맞게 번안한 질문지를 사용하였다. FACES III는 Circumplex Model을 평가하기 위해 개발된 FACES 척도의 세 번째 시리즈로 성인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할 수 있는 자기보고식 척도로서 총 2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별로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로 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가족기능이 원활함을 의미한다. 가족기능을 측정하는 문항의 예로는 ‘우리가족은 어려울 때 서로 도와준다.’가 있다.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 값은 .86으로 나타났다.

또래애착

본 연구에서 청소년의 또래에 대한 애착을 측정하기 위해 Armsden과 Greenberg (1987)가 10~20세 대상으로 제작한 부모 및 또래 애착 척도(Inventory of Peer Attachment: IPPA)를 수정한 개정본(IPPA-R)을 옥정(1998)이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또래에 대한 애착 척도는 총 25 문항으로 각 문항별로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4점)로 되어 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애착이 높은 것을 의미하며, 부정적인 문항은 역채점 하여 사용하였다. 문항의 예로는 ‘내가 어떤 일로 기분이 상했을 때 내 친구들은 바로 알아차린다.’가 있으며,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 값은 .90으로 나타났다.

자아존중감

본 연구에서 자아존중감을 측정하기 위해 Rosenberg(1965)가 개발한 검사를 전병제(1974)가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자아존중감 측정 도구는 총 10문항으로 구성되어있으며, 각 문항별로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4점)로 되어 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은 것을 의미하며, 부정적인 문항은 역채점 하여 사용하였다. 문항의 예로는 ‘나는 내가 다른 사람들처럼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가 있으며,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 값은 .82였다.

3. 연구절차 및 자료분석

경기도 부천시 소재하는 중학교 1학년 학생 12명을 대상으로 2010년 11월 말 예비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본 조사는 인천광역시와 충청남도 소재한 중학교 1학년 재학생을 대상으로 자기보고식 질문지법을 사용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WIN 17.0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각 검사도구의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해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를 구하였으며, 백분율, 최소-최대값, 평균, 표준편차를 산출하였고, t-test와 Pearson의 상관분석,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III. 결 과

분석에 앞서 이 연구에서 다루고 있는 변수들의 범위를 살펴보고,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해보았다. 결과는 표 2에 제시되어 있다.

1. 일반자녀와 직업군인자녀의 가족기능, 또래애착, 자아존중감 차이

일반자녀와 직업군인자녀의 가족기능, 또래애착, 자아존중감에 차이가 있는가를 알아보

표 2. 가족기능, 부애착, 또래애착, 자아존중감, 스트레스, 학교적응의 범위 및 평균, 표준편차
($N = 387$)

변인 \ 통계치	응답 가능한 점수범위	최소- 최대값	$M(SD)$
가족기능	1~5	2.00 ~5.00	3.52 (.50)
또래애착	1~4	1.48 ~4.00	2.98 (.39)
자아존중감	1~4	1.60 ~4.00	2.92 (.45)

표 3. 일반자녀와 직업군인자녀의 가족기능, 또래애착, 자아존중감의 차이
($N = 387$)

	일반자녀 ($n=195$)	직업군인 자녀($n=192$)	t
	$M(SD)$	$M(SD)$	
가족기능	3.57(.48)	3.47(.52)	1.88
또래애착	3.00(.38)	2.95(.41)	1.07
자아존중감	2.99(.44)	2.85(.46)	3.08**

** $p < .01$

기 위해 실시한 t검증의 결과는 표 3과 같다.

자아존중감에 있어 일반자녀($M = 2.99$, $SD = .44$)가 직업군인자녀($M = 2.85$, $SD = .46$)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 유의미한 차이($t = 3.08$, $p < .01$)를 보였다.

2. 가족기능, 또래애착, 자아존중의 관계

가족기능, 또래애착, 자아존중감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Pearson 적률상관계수를 산출하였다. 그 결과는 표 4, 표 5에 제시한 바와 같다.

분석결과 일반자녀의 자아존중감은 가족기능, 또래애착과 유의미한 상관관계($r = .18 \sim .45$)를 나타냈다. 또한 직업군인 자녀의 자아존중감도 가족기능, 또래애착과 유의미한 상관관계($r = .21 \sim .41$)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일반자녀의 가족기능, 또래애착, 자아존중감의 상관관계
($N = 195$)

	1	2	3
1. 가족기능	1		
2. 또래애착	.22**	1	
3. 자아존중감	.18*	.45***	1

* $p < .05$. ** $p < .01$. *** $p < .001$.

표 5. 직업군인자녀의 가족기능, 또래애착, 자아존중감의 상관관계
($N = 192$)

	1	2	3
1. 가족기능	1		
2. 또래애착	.21**	1	
3. 자아존중감	.39***	.41***	1

** $p < .01$. *** $p < .001$.

즉 일반자녀와 직업군인자녀 모두 가족기능, 또래애착이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3.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과 영향력

일반자녀와 직업군인자녀의 자아존중감에 대한 영향력이 큰 변인들과 그 영향력을 살펴보기 위한 중다회귀분석의 결과는 표 6과 같다. 먼저 회귀분석을 위한 기본 가정의 만족 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VIF지수와 Durbin-Watson계수를 조사한 결과 VIF지수는 1.05점으로 10보다 현저하게 작아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Durbin-Watson계수도 2.05~2.08로 잔차 간 자기상관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회귀분석을 위한 기본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았다. 회귀분석의 독립변인은 가족기능, 또래애착을 투입하여 그 영향력을 분석하였다.

일반자녀의 자아존중감에는 또래애착($\beta =$

.43, $p < .001$)이 영향력 있는 변인으로 나타났으며, 그 설명력은 21%였다. 즉 일반자녀는 또래애착이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직업군인자녀의 학교적응에는 또래애착($\beta = .34$, $p < .001$), 가족기능($\beta = .32$, $p < .001$) 순으로 영향력 있는 변인으로 나타났으며 그 설명력은 26%로 가족기능이 높고 또래애착 형성이 잘 될수록 자아존중감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중학교에 재학 중인 일반자녀와 직업군인 자녀들을 대상으로 자아존중감의 차이를 살펴보고,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얻은 결과를 중심으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일반자녀가 직업군인자녀보다 자아존중감을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남으로써 일반 자녀가 직업군인 자녀보다 자기 자신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자신에게 만족하며 자신을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지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박영배(1991), 이호성(1983)의 연구에서 군인가정의 잦은 이주 및 장기간 별거와 같은 가정환경의 불안정과 군인의 직업적 특성에 따른 아버지의 역할 부재로 인하여 자녀의 가치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와 같은 맥락을 보이는 것으로, 직업군인의 특성상 부의 결손 및 잦은 전학으로 인한 또래와의 불안정한 관계

표 6.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N = 387$)

	자아존중감			
	일반자녀		직업군인자녀	
	B	β	B	β
가족기능	.07	.08	.28	.32***
또래애착	.50	.43***	.39	.34***
R^2	.21		.26	
수정된 R^2	20		26	
F	24.73***		33.77***	
DW	2.05		2.08	

*** $p < .001$.

형성으로 인한 것으로 생각되며 특히, 청소년기의 특성상 예민하고 불안한 시기에 아버지의 직업적인 특성이 반영된 것이라고 추측된다.

따라서 직업군인 자녀들에게 학생의 주어진 환경이나 상황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도록 긍정적인 자아존중감을 형성을 위한 지도가 필요한 것으로 보여진다. 한번 형성된 자아존중감이 불변하는 것은 아니지만 급격히 변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정익중, 2006; Cole et al., 2001) 단기프로그램보다는 장기적이며 체계적으로 운영해 나가야 할 것이다.

둘째, 상관분석 결과 일반자녀와 직업군인 자녀 모두 가족기능, 또래애착이 높은 아동의 자아존중감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가족 건강성이 높을수록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이 높다는 연구(권대희, 2003), 가족기능의 하위요인인 결속력과 적응력이 모두 청소년의 자아존중감과 정적 상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난 연구결과(김태현, 이영자, 2005; 채유경, 2004)와 일치 하며, 남녀 청소년 모두 자아존중감에 또래애착이 관련 변인으로 나타난 연구(김수희, 2009; 조혜진, 2006), 친구와의 관계가 청소년의 자아존중감과 관련이 있다는 연구(오수현, 2010)와도 연구결과가 일치한다.

셋째, 회귀분석 결과 일반자녀는 또래애착만이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으며, 직업군인자녀는 가족기능, 또래애착 모두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자녀와 직업군인자녀의 자아존중감에 있어 모두 또래 애착이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나타나 청소년기에 또래애착의 중요

성을 확인 할 수 있었는데 이는 또래와의 의사소통이나 신뢰 및 지지가 자아존중감 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있겠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Picou와 Carter(1976)의 연구에서 또래관계는 단순한 격려와 지지차원을 넘어 서로 모델링을 하면서 힘을 북돋아 준다고 한 연구결과, 친구관계의 질이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김지영, 이형실, 2010)와 같은 맥락을 보이며, 또래애착이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선행연구(정미선, 2010; 채영이, 2006)와 일치하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청소년들이 친구관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지나친 경쟁보다는 상호존중의 분위기 속에서 서로 지지해주며 또래와 원만한 대인관계를 맺어나갈 수 있도록 바람직한 또래관계 형성을 지원하고 또래 괴롭힘과 같은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프로그램이 필요한 것으로 보여진다. 특히, 전학이 잦은 직업군인 자녀의 경우 또래관계 및 사회성 증진프로그램이 더욱 필요할 것으로 여겨진다.

본 연구에서는 직업군인 자녀의 자아존중감에는 또래애착 뿐 아니라 가족기능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일반 자녀를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김태현, 이영자, 2005; 서영미, 2004; 임선희, 2009)와 같은 맥락을 보이는 것으로 가족은 개인에게 영향을 주는 사회문화적 환경 중 직접적이고 일차적인 환경으로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에 있어 중요한 영향을 미치므로 직업군인의 가족에게 가족기능을 성장시킬 수 있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의 운영 및 개발이 이 시기의 청소년들의 자아존중감을 높이기

위한 사회적인 지원책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해 준다. 미국에서는 1980년부터 군과 가족의 관련성을 인식하고 군인 가족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왔다(Daley, 2003). 즉, 가족생활주기를 고려한 가족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박미은, 2009), 가족의 각 단계별 욕구에 기초한 가족 지원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직업군인 자녀의 경우 가족요인과 또래요인 모두 자아존중감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는 직업군인 자녀의 경우 긍정적인 자아존중감의 발달을 위해서는 가정과 학교에서 모두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함을 시사한다.

본 연구 이후의 후속 연구를 위한 몇 가지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의 학교 교육이 경쟁적인 교육풍토 속에서 학업성적과 입시를 강조하고 있는 만큼 학업성적과 같은 직접적인 학습수행 요소를 포함하여 자아존중감과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을 탐색해 본다면 청소년들의 자아존중감을 보다 면밀히 탐색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둘째, 특수한 성장환경을 가지고 있는 직업군인 자녀들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위하여 군인 직업군인 자녀들의 보다 심층적이고 다각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보여진다.

셋째, 가족 내 부모의 평가나 학교 교사 또는 친구의 평가가 아닌 청소년 자녀가 지각한 평가로 자아존중감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연구로 부모와 교사, 학생이 함께 지각한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보여진다.

넷째,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 완충효과를 나타내는 조절변인을 탐색해보는 연구를 통하

여 청소년의 자아존중감과 관련한 예방 및 개입프로그램을 개발할 경우 보다 효과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고 사려된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는 일반자녀와 직업군인 아버지를 둔 청소년의 가족기능, 또래애착, 자아존중감의 차이를 살펴보고,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 있어 일반자녀는 또래애착이 직업군인 자녀는 가족기능, 또래애착이 자아존중감에 있어 관련 변인임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일반 자녀와 직업군인 자녀를 비교하여 자아존중감에 관한 관련변인을 살펴봄으로써 청소년들이 처해있는 다양한 환경에 따라 다각적이고 차별화된 교육이 마련되어야 함을 제시하는데 의의가 있다.

참고문헌

- 강진희 (2000). 군 청소년 자녀가 인식하는 아버지 역할.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청구 논문.
- 고영환 (2003). 모병제 도입의 경제적 타당성 분석에 관한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권대희 (2003). 청소년기 자녀가 지각한 가족의 건강성과 자아존중감에 대한 연구.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미란 (2002). 청소년의 친구관계와 자아존중감. 전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김수희 (2009). 부모의 양육행동, 부모애착 및 또래애착과 남녀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간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 청구논문.
- 김지영, 이형실 (2010). 청소년의 가족 및 또래 요인이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 가정과교육학회지, 22(1), 21-32.
- 김태현, 이영자(2005).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와의 의사소통과 가족기능이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관계학회지, 10(3), 173-193.
- 류광석 (2002). 초등학교의 자아존중감과 가정 생활 만족도 및 학교생활 만족도와 의 관계. 순천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문선영 (2009). 군인 자녀의 전학경험과 학교 생활 적응에 관한 연구. 공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박미은 (2009). 군 가족지원정책의 활성화를 위한 사회복지시스템의 활용방안. 한국군 사회복지학, 2(2), 1-24.
- 박영배 (1991). 가정환경에 따른 군인자녀의 행동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박재하 (1990). 군인자녀 교육을 위한 사립학교 신설 검토. 한국국방연구원.
- 서영미 (2004). 아동이 지각한 가족기능성, 또래관계 및 자아존중감의 관계.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서주현, 유안진 (2001).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과 친구관계의 특성. 아동학회지, 22(4), 149-166.
- 심수정 (2003). 중학생의 또래에 대한 애착 정도와 자아존중감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안만국 (1983). 군인자녀교육 실태의 분석 적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양정화 (2002). 부모와의 애착이 아동의 자아 존중감과 학습동기에 미치는 영향. 건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오수현 (2010).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주는 요인 분석.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옥 정 (1998). 청소년기 애착 안정성과 우울성향과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윤신기 (2004). 초·중학생의 자아존중감과 스트레스 대처법과의 관계. 아동교육, 13(2), 239-251.
- 윤화준 (2011). 직업군인의 직무스트레스와 가족기능이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 동신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이미리 (2005). 청소년기 자아존중감과 가족, 친구, 학업, 여가, 직업 변인들의 관계. 한국청소년연구, 16(2), 263-293.
- 이미현 (2005). 부모와의 의사소통과 가족기능이 중학생의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이영균, 최복희 (2010). 직업군인 가족의 삶의 질 실태분석. 한국군사회복지학, 3(2), 25-45.
- 이호성 (1983). 군인자녀 고등학생의 가정환경과 가치관에 관한 일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이효정 (2003). 중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 태도와 자아존중감과의 관계.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임선희 (2009). 청소년이 지각하는 가족기능이

- 자아존중감과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 대전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임수경, 이형실 (2007).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부모와의 관계, 친구관계가 학교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19(3), 169-183.
- 임연진, 나유미 (2003). 청소년의 부모-자녀관계 및 자아존중감과 외로움간의 관계. *청소년복지연구*, 5(2), 61-69.
- 전병제 (1974). 자아개념측정 가능성에 대한 연구. *연세논총*, 11(1), 107-130.
- 정미선 (2010).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와 또래관계가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문화포럼*, 25, 140-173.
- 정병두 (2000). 직업군인 복지정책의 현실태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대전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정선구 (2007). 미국 가족지원정책의 추진과정과 우리의 방향. *주간국방논단*, 07(1155).
- 정익중 (2006). 자아존중감과 청소년비행 간의 상호적 영향. *사회복지연구*, 31, 133-159.
- 조혜진 (2006). 청소년의 또래애타과 우울, 불안.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채영이 (2006). 중학생의 애타과 자아존중감 및 학교생활적응의 관계.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채유경 (2004). 청소년이 지각한 가족 응집성 및 적응성, 자아존중감과 대인관계간의 관계. *청소년상담연구*, 12(2), 136-144.
- 최윤정 (2005). 학령기 군인자녀의 삶의 질과 행동양상.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최은순 (2009). 국방인적자원의 총원모델 전환에 따른 사회경제적 분석.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최정미, 김미란 (2003). 청소년의 친구관계 특성과 만족도 및 자아존중감에 관한 연구. *청소년학연구*, 10(3), 373-394.
- 한상분 (1992). 아동의 자아개념과 가족체계의 기능유형.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Ainsworth, M., & Bell, S. M. (1970). Attachment, exploration, and separation: illustrated by the behavior of one-year-olds in a strange situation. *Child Development*, 41, 49-67.
- Armsden, G. C., & Greenberg, M. T. (1987). The inventory of Parent and Peer Attachment: Individual differences and their relationship to psychological well-being in adolescence.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16(5), 427-453.
- Barnow, S., Lucht, M., & Freyberger, H. J. (2005). Correlates of aggressive and delinquent conduct problems in adolescence. *Aggressive Behavior*, 31(1), 24-39.
- Baumeister, R. F., Dori, G. A., & Hastings, S. (1998). Belongingness and temporal bracketing in personal accounts of changes in self-esteem.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32, 222-235.
- Brown, J. D., & Mankowski, T. A. (1993). Self-esteem, mood, and self-evaluation: Changes in mood and the way you see you.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4(3), 421-430.
- Bynum, M. S., & Kotchick, B. A. (2006). Mother-adolescent relationship quality and

- autonomy as predictors of psychological adjustment among African American adolescents. *Journal of Child and Family Studies*, 15(5), 529-542.
- Chapple, C. L. (2005). Self-control, peer relations, and delinquency. *Justice Quarterly*, 22(1), 89-106.
- Cole, D. A., Maxwell, S. E., Martin, J. M., Peeke, L. G., Seroczynski, A. D., Tram, J. M., Hoffman, K. B., Ruiz, M. D., Jacquez, F., & Maschman, T. (2001). The development of multiple domains of child and adolescent self concept: A cohort sequential longitudinal design. *Child Development*, 72(6), 1723-1746.
- Daane, D. M. (2003). Child and adolescent violence. *Orthopedic Nursing*, 22(1), 23-31.
- Daley, J. G. (2003). Military Social work.: A Multi-country Comparison. *International Social work*, 46(4), 437-448.
- Dauvan, E., & Adelson, J. (1966). *The adolescent experience*. New York: Wiley.
- D'Zurilla, T. J., & Nezu. M. (2007). *Problem solving therapy: A Positive approach to clinical intervention*(3rd ed.). New York: Springer Publication.
- Freeman, H., & Brown, B. B. (2001). Primary Attachment to parents and peers During Adolescence: Differences by attachment style.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30(6), 653-674.
- Garbarino, J., & Sebes, J. (1985). Family at risk for destructive parent-child relations in adolescence. *Family Process*, 24, 385-398.
- Harter, S. (1993). Causes and consequences of low self-esteem in children and adolescents. In R. F. Baumeister(Ed.), *Self-esteem: The puzzle of low self-regard*(pp.87-116). New york: Plenum.
- Kalish, R. A., & Knudston, F. W. (1976). Attachment versus disengagement: A life-span conceptualization. *Human Development*, 19, 171-181.
- Laible, D. J., Carlo, G., & Roesch, S. C. (2004). Pathways to self-esteem in late adolescence: the role of parent and peer attachment, empathy, and social behaviors. *Journal of Adolescence*, 27(6), 703-716.
- Laird, R. D., Petti, G. S., Dodge, K. A., & Bates, J. E. (1999). Best friendships, group relationships, and antisocial behavior in early adolescence. *Journal of Early Adolescence*, 19(4), 413-437.
- Long, B. H., Henderson, E. H., & Ziller, R. C., (1968). Development changes in the self-concept during middle school. *Merrill-Palmer Quarterly*, 13(2), 201-215.
- Marchant, K. H., & Medway, F. J. (1987). Adjustment and achievement associated with mobility in military families. *Psychology in the School*, 24, 289-294.
- McGee, R., & Williams, S. (2000). Does low self-esteem predict health compromising behaviors among adolescence? *Journal of Adolescence*, 23(6), 569-582.
- Mead, G. (1934). *Mind, self and society*.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Olson. D. H (1991). Commentary Three-

- dimensional (3-D) Circumplex model and revised scoring FACES III. *Family Process*, 30(1), 74-79.
 - Olson. D. H., Portner. J., & Lavee, Y. (1985). *FACESIII*. St. Paul: University of Minnesota.
 - Picou, J. S., Carter, T. M. (1976). Significant-other influence and aspiration. *Sociology of Education*, 49(1), 12-22.
 - Richard, J. P. (2008). *Family, religion, and well-being from adolescence to young adulthood: Parents of religious participation and the influence of family and religious characteristics on trajectories of well-being*.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The University of Ohio State.
 - Rosenberg, M. (1965). *Society and the adolescence self-image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 Shek, D. T. L. (2002). Family functioning and Psychological well-being, school adjustment, and problem behavior in Chinese with and without economic disadvantage. *Journal of Genetic Psychology*, 163(4), 497-502.
 - Walling. D. R, (1990). *Meeting the needs of transient students*. Bloomington, IN: Phi Delta Kappa Educational Foundation.
 - Youniss, J., & Smollar, J. (1985). *Adolescence' relationship with mothers, fathers and friends*. University of Chicago Press, Chicago, IL.
- 1 차원고접수 : 2012. 1. 11
수정원고접수 : 2012. 5. 10
최종게재결정 : 2012. 5. 30

The Effects of Family Function, and Peer Attachment on the Self-esteem of Adolescents - With a Special Focus on General Adolescents and the Adolescents of Fathers in the Military -

Yang, Suk Kyung

Dept. of Child & Family Studies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Moon, Hyuk Jun

Dept. of Child Studies.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both family function and peer attachment on the self esteem of adolescents. The subjects of this study were 430 first grade middle school students residing in Incheon, Chungnam. Out of this total 387 self reported questionnaires were used for the final analysis. Data were analyzed by means of Cronbach's α , t-test, Pearson's correlation,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The results indicated that (a) general adolescents had higher self-esteem than the adolescents of fathers in the military: (b) there were significant relationships between family function, peer attachment and self-esteem: (c) peer attachment was the main predictor when it came to the self-esteem of general adolescents; family function and peer attachment were the main predictors for self-esteem of adolescents with fathers in the military. These results suggest that the self esteem of general adolescents and adolescents of fathers in the military can be improved by the development of educational programs which take adequate account of existing levels of self esteem. Clearly these results also provide basic data which will be of use to experts in developing such programs.

Key words : self-esteem, family function, peer attachment